



+ 이장섭 · 방송과기술 기자

미녀들의 수다 - 크리스마스 특집 제작 현장

여러 나라의 여성들이 이야기하면서 문화적인 차이로 빚어진 말들이 사건·사고들을 만들기도 했지만, 이것마저도 미녀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바뀌었다. 미수다는 시청자들의 지속적인 사랑으로 지난해 11월 3일 100회를 맞이했으며, 미녀들의 입심은 매주 월요일 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글로벌 토크쇼

글로벌 토크쇼는 식상할 수 있는 예능에 수많은 주제와 예측 불가능한 답변들로 신선함을 선사하고 있다. 영토분쟁, 물가, 먹거리 등의 시사문제부터 사랑, 가족, 눈물 등의 감성문제까지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양한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다.

금발 머리, 푸른 눈동자, 검은 피부를 가진 외국인 여성들이 토크쇼에 출연하여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풀어내는 수다는 커다란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유명한 연예인이 등장하지 않아도, 화려한 개인기나 파격적인 예고편이 없어도 '미녀들의 수다(일명 미수다)'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여러 나라의 여성들이 이야기하면서 문화적인 차이로 빚어진 말들이 사건·사고들을 만들기도 했지만, 이것마저도 미녀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바뀌었다. 미수다는 시청자들의 지속적인 사랑으로 지난해 11월 3일 100회를 맞이했으며, 미녀들의 입심은 매주 월요일 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기획 의도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약 50만명으로 그만큼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 중 외국인 여성들이 본 한국의 문화,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국내에 거주하며 우리나라를 몸소 체험한 여러 나라의 외국인 여성 16명이 출연해 그 념들의 눈을 통해 본 한국인들의 현 주소를 재치 있는 양케트와 토크를 통해 풀어 본다.

제작 과정

"60여명의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나는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데, 니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죄송합니다." 많이 들어서 너무도 익숙하다. 영화배우 황정민이 2005년도 청룡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 수상 후 전 국민을 감동시킨 수상소감이다.

스타는 검은 슈트에 메이크업을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커피를 즐긴다. 스태프는 청바지와 점퍼에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커피를 즐긴다. 결과만을 논하는 시청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속에서 연출부터 스태프들까지 과정 하나하나에 열정을 쏟아 붓는다. 이런 스태프들의 열정과 노력이 없다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기가 힘들다. 스태프들이 제작에 녹여내는 열정의 시간 속에 잠시 편승해보자.

세트설치 ⇒ 조명장비 설치 및 셋업 ⇒ 음향장비
설치 및 셋업 ⇒ 영상장비 설치 및 셋업 ⇒ 리허설
⇒ 녹화 ⇒ 편집 ⇒ 송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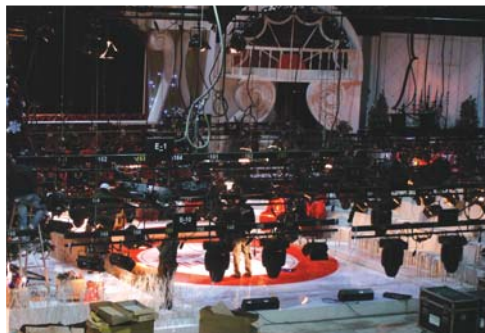
▶ 세트설치(전날 밤, 녹화 당일 10시)

미수다의 세트설치는 녹화 전날 프로그램이 끝난 후 기존의 세트를 철거하고 설치한다. 스튜디오가 일주일 내내 녹화가 있고, 오후 2시부터 미수다 녹화가 시작되어 세트설치는 전날에 이뤄진다. 세트설치 후 각종 소품들로 무대장식을 하는데 이번 녹화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대형트리와 녹화장 한켠으로 자리 잡았다. 아침 9시도 안된 시간부터 트리가 장식되었는데 워낙에 커다란 소품이라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역시 크리스마스에는 트리가 있어야 하나보다 푸른색 나무 위로 흰색과 붉은 색의 화려한 조화가 크리스마스의 기운으로 들뜨게 한다.



▶ 조명장비 설치 및 셋업(09:00~12:00)

조명팀의 작업이 제일 먼저 이뤄진다. 외부 장비 렌트 사들과의 의견 조율 및 업무를 지시하고 조명 바턴을 내려서 등기구 설치, 조명기기 교체, 이동작업이 이뤄지므로 많은 시간과 안전사고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조명은 많은 기기들을 구비하고 있으며, 무게도 만만치가 않다. 거기에 미술적 감각을 항상 키워야 한다. 그림, 상황, 자연광 등 상황과 음악에 맞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미술적인 감각이 필요하다.



▶ 음향장비 설치 및 셋업(09:00~12:00)

외부 장비 렌트사들과의 의견 조율 및 업무를 지시하고, 방송과 PA 장비를 설치 및 조율한다. 미수다는 기본 인원이 사회자 1명, 미녀 16명, 게스트 5명으로 22개의 마이크가 필요하다. 이번 크리스마스 특집에서는 '미녀의 단짝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코너가 있어서 16명의 일반인 게스트가 초대됐다. 이로 인해, 무대에서 38개나 되는 마이크가 필요했다. 한 무대에 많은 마이크를 사용하면 서로의 목소리들이 마이크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수음시 많은 잡음이 발생한다. 출연자들이 말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 영상장비 설치 및 셋업 (12:30~13:30)

조명 바턴이 올라가고 무대세트에 사용하고 난 소품들이 정리되면 세트를 중심으로 카메라들이 배치된다. 출연자에 방청객까지 100여명이나 되는 인원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메인 카메라 3대, 일반 카메라 3대, 지미집 카메라 2대까지 8대의 카메라가 무대의 구석구석을 잡아낸다. 지미집 카메라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먼 곳에서 가까운 곳까지 효율적으로 촬영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시스처럼 생긴 바턴 끝부분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리허설(13:30~14:00)

토크쇼이므로 출연자들의 마이크 상태를 파악하고, 출연자들의 자리 이동, 의상 점검 등이 동시에 이뤄진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출연자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조율한다. 또, 본 녹화의 흐름상 중간에 할 수 없는 단체 노래라든지, 춤 공연들은 미리 녹음하거나 촬영하기도 한다.

▶ 녹화(14:00~19:30)

녹화를 준비하는 분주한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오후 2시 KBS 별관에서는 '미녀들의 수다 크리스마스 특집편'의 녹화가 시작됐다. 연출의 시작 사인과 함께 MC 남희석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미녀들의 말문이 터져 나왔다.

2시간 여의 1부 녹화가 끝나고 30분의 휴식시간. 이 시간에도 스태프들은 일반인 게스트들의 자리를 배치하고, 마이크를 교체하고, 단짝친구들과의 커플 컷을 별도로 촬영하느라고 분주하다. 또한, 이 시간은 미녀들이나 연예인 출연자들과 방청객들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미녀들과 출연자들은 흔쾌히 사진 촬영에 응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이들과의 만남이 사진이 되어 행복한 추억이 되는 순간이다.

30분의 휴식 후 3시간 여의 2부 녹화가 진행됐다.

▶ 편집과 송출

편집은 연출자가 콘셉트에 맞게 좋은 부분들을 살려 완성본을 제작한다. 이 완성본이 매주 월요일밤 11시 05분(KBS2)부터 전파를 타고 시청자의 안방으로 전달된다.

크리스마스를 누구와 보내느냐는 질문에 많은 미녀들이 가족과 함께 보낸다고 이야기가 했다. 먼 나라에 와서 즐거움이 지나가고 남은 자리에 자신만의 아픔이 있듯이 미녀들이 가족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을 적신다.

나라마다의 차이만을 이야기하던 시간 속에서 가족이라는 말에 공통점을 찾았다. 지금의 눈물이 아름다운 것은 가슴 한편이 편해져 마음이 시키는 것이니 그때여 울어도 좋다.





무대와 출연자들을 살피는 이민호 연출



브로닌의 장난끼 섞인 보정속옷 선물에 쓰러지는 MC 남희석



FT아일랜드 이홍기군과 얼굴 크기를 비교하는 비앙카



녹화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작가들



짝사랑 하는 테이를 스튜디오에서 만난 사유리

